

광주 부동산 거래 절벽...공인중개사들 아우성

9·13 대책 후 아파트 거래량 3분의1로 떨어져 사업자 3년간 40% 증가 '포화상태' 경쟁 치열

“어디를 가든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9·13 대책 이후 매매 거래는 아예 끊기 다시피 했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가 계약조차 없어요. 광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으니 다들 아우성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6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A(43)씨는 얼마전 사무실을 내놨다. 한달에 1건도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것도 박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사무실이 나가지 않아 권리금을 챙기는 것도 어려울 정도다.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사무실을 운영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다. A씨 뿐 아니다. 송정동 일대에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놓은 사람이 3~4명에 이른다.

A씨는 “수익을 가져가기는커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아예 포기하려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나서면서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절벽’에 맞닥뜨렸다. 거래가 뜰 뿐 아니라 가뜩이나 과도한 경쟁 속에 어려움이 컸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등 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 상당수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나, 생계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업계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크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달동안 신고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2348건이었다. 이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1907건으로 18.78% 줄어든데다, 11월 14일부터 이달 13일에는 절반이 넘는 848건(55.53% ↓)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한달 전(8월14일~9월13일) 거래량이 310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한달만 무려 72.68%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기존에 비해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 3개월이 지나면서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포화상태였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크다. 업계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거래가 뜰 수밖에 없었다.

이날 국제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사업자수는 9월 기준 2015년 2657명 →2016년 3061명(15.21% ↑)→2017년 3472명(13.42%)→2018년 3733명(7.52% ↑)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3년 사이 무려 40.50%(1076명)가 늘어난 것이다. 현재 광산구 일대에만 1067명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업계간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다.

광주의 공인중개사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뿐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나 법무사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업계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계를 위해 업계에 뛰어들 수 많은 중개사들이 일자리를 잃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8.84 (+16.73) ↓ 금리(국고채 3년) 1.78 (-0.01)
- ↑ 코스닥 672.08 (+12.41) ↓ 환율(USD) 1123.50 (-6.10)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이 19일 두부과자 제조업체인 '(주)쿠기아'를 방문해 두부과자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본부 세관제공>

주시경 광주세관장 여수 두부과자 제조업체 방문

수출 지원방안 등 논의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19일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두부과자 제조업체인 '(주)쿠기아'를 방문해 수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주)쿠기아'는 두부과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2017년 '중소기업 경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두부과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생산제품의 국내 공급만으로는 기업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기업화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임을 공감했으며 수출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관세청 차원에서의 기업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유·스퀘어 새 단장...명품 편집숍 들어선다

2층 사우나 공간 리모델링 노후화 지하상가 리뉴얼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인 유·스퀘어(U Square)가 새롭게 단장된다. 유·스퀘어 내 2층 660㎡ 규모의 사우나 공간은 명품 패션잡화 매장을 갖춘 쇼핑몰로 변신한다. 유·스퀘어로 이어지는 직적하고 어두웠던 반(半) 지하방 분위기의 지하상가도 달라진다.

유·스퀘어는 '2019년 사업계획'에 이미 영업을 중단한 기존 사우나 공간을 리모델링, 유·스퀘어몰로 꾸며 내년 2월 개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새롭게 바뀌는 유·스퀘어몰에는 화장품, 향수, 가방, 액세서리류 등을 갖춘 명품 편집숍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유·스퀘어 내 버스터미널 대표소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확충, 유·스퀘어몰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스퀘어는 CGV 영화관을 기존 9개에서 11개관으로 늘린 데 이어 지

난 9월 영평문고 별관을 대표소 인근 대합실까지 확충하면서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스퀘어는 이번 스퀘어몰 개장으로 복합문화공간이 한층 넓어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지게 되면서 더 많은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스퀘어를 찾는 유동 인구만 6만~7만5000명에 달한다.

유·스퀘어는 또 건물로 이어지는 노후화된 지하상가도 보수 공사를 거쳐 리뉴얼해 고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여기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담은 콘텐츠를 올리고 포토존 확대,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SNS 이벤트를 열어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문화, 예술, 젊음이 어우러진 광주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 현대차그룹 인사 전무 승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박래석(53·사진) 공장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박 공장장은 19일 이뤄진 현대차그룹의 2019년 정기 임원 승진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기아차 183명, 계열사 164명 등 347명 규모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직급별로는 ▲부사장 8명 ▲전무 25명 ▲상무 64명 ▲이사 106명 ▲이사대우 141명 ▲연구위원 3명 등으로, 박 공장장은 기아차 내 6명의 전무 승진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인사는 임원 교체 확대에 따라 신규 임원 수를 늘림으로써 리더십 변화 폭을 확대하고 차세대 리더 후보군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영광 출신인 박 공장장은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박 공장장은 지난 1991년 그룹 공채로 입사해 2013년 기아차 소하리 2공장장,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담당 상무 등을 역임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은 19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송중욱(왼쪽 6번째) 광주은행장이 전달식 이후 김영록(왼쪽 5번째)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광주·전남사랑카드 기부금 6995만원 전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9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광주·전남사랑카드, 광주·전남사랑라플래티늄카드, 광주·전남사랑아너스카드를 출시했다.

카드 이용금액의 0.5%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11월 말 기준 총 1억2930만1941원이 적립되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이 중 6995만 6210원으로 전남지역 내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며, 광주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쓰여질 광주·전남사랑카드 기부금 또한 이 달 내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사랑카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시에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으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사랑카드’는 고향사랑기부서비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 금

액 10만원 당 5000 포인트 적립, 패밀리레스토랑·커피전문점·온라인쇼핑·예매·교통·여행 등에서 이용 시 10% 포인트 적립 등 월 최대 3만 포인트 적립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린카드 멤버십 서비스도 탑재해 고객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사랑 아너스카드’의 경우 바우처서비스,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서비스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별 이벤트로 호텔 라운지 무료 음료, 호텔 사우나 무료입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출향민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